



BMW '7세대 뉴 5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쿼페'



폭스바겐 '2세대 티구안'



아우디 '신형 A5'



미니 '2세대 미니 컨트리맨'



푸조 '신형 2008'



인피니티 'Q30'



혼다 '5세대 CR-V'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 BMW '뉴 5시리즈'로 왕의 귀환?

(수입 세단 판매량 1위 탈환)

## 올해 기대되는 수입차는?

폭스바겐 '2세대 티구안'으로 재기 노려 인피니티 크로스오버 모델 'Q30' 승부수

2017년 수입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디젤차 이슈와 국내 경기 부진 등이 맞물려 수입차 업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브랜드의 신차가 대거 투입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017년 수입차 시장을 2016년 예상대수인 22만8000대로 약 4% 성장한 23만8000대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수입 신차를 살펴봤다.

### ●BMW, 7세대 뉴 5시리즈

BMW는 오는 2월 7세대 뉴 5시리즈를 선보인다. 벤츠 E클래스와 함께 수입 세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모델로 지난해 벤츠 E클래스에 내줬던 판매량 1위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7세대 뉴 5시리즈는 차체 크기가 더욱 커지고 무게는 100kg 가량 감량해 더욱 역동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자율주행에 가까운 첨단 주행 안전 사양이 특히 기대된다. 차선 유지 및 변경을 포함해 장애물을 인식해 갑작스러운 충돌을 회피하는 차선 컨트롤 어시스트와 지능형 속도제어, 파킹 어시스트 등을 갖췄다.

###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쿼페

2016년 SUV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벤츠는 2017년 GLC 쿼페를 통해 라인업을 완성한다. GLC 쿼페는 벤츠가 만드는 SUV 쿼페 라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스포티하게 디자인된 범퍼와 긴 오버행을 통해 날렵한 이미지를 자랑한다. 220d 모델의 경우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40.8kg.m을 발휘한다. 9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4매틱이 적용된다.

### ●폭스바겐, 2세대 티구안

폭스바겐에서는 2세대 티구안을 출시하며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은 더욱 간결하고 강인해졌다. 특히 전면부의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직선으로 디자인되어 당당한 느낌을 준다. 폭스바겐 최초로 MQB 플랫폼을 적용해 제작된 SUV이며 전체적으로 더 낮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차체 크기는 더 커졌다. 길이는 60mm, 넓이는 30mm가 늘어났다. 듀얼클러치 변속기와 4모션이 적용된다.

### ●아우디, 신형 A5

아우디 신형 A5는 9년 만에 풀체인지되는 2세대 모델이다. A5 특유의 스포티하고 강렬한 이미지는 더욱 강조하면서도 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또한 휠베이스는 늘리고 오버행은 줄여 더 쾌적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향상된 공기저항계수(0.25)를 달성했다. 새 플랫폼의 적용으로 전체 차량 무게를 60kg 가량 감량해 전제적인 차량 성능과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트렁크 용량은 10리터 늘어난 465리터다.

### ●미니, 2세대 미니 컨트리맨

2세대 미니 컨트리맨은 차체를 더욱 키워 실내 거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전장은 200mm 늘어났고, 휠베이스는 75mm, 전폭은 30mm 넓어졌다. 소형 SUV에 가까운 크기로 성인 5명이 여유롭게 탈 수 있게 됐다. 트렁크 용량은 450L이며, 뒷좌석은 4:2:4로 다양하게 접어 활용할 수 있고, 최대 1390L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3기통 1.5L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새롭게 선보였다.

### ●푸조, 2017 2008

푸조는 SUV라인업 전체를 풀체인지하고 있다. 2017년형 2008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액티브 시

티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시속 30km/h 이하로 저속 주행시 충돌 위험이 느껴지면 운전자에게 경고와 함께,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된다. 개선형 자동 주차 시스템과 애플카플레이도 지원된다. 변속기도 M-CP타입에서 EAT 6단 변속기로 바꿨다. 변속 충격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2월경 출시 예정이다.

### ●인피니티, Q30

인피니티에서는 크로스오버 모델인 Q30을 선보인다. 세단과 SUV의 장점을 합친 브랜드 최초의 준중형 크로스오버다. 인피니티 특유의 근육질 바디에 매력적인 스포티함을 갖춰 디자인만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랜드 최초로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결합했다. 최고 출력은 211마력, 최대토크는 35.7kg.m이다. 스포티한 성능을 위해 새롭게 튜닝된 서스펜션과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 ●혼다, 5세대 CR-V

혼다에서는 베스트셀링 모델인 CR-V 5세대 모델을 출시한다. 외관 디자인은 더 스포티하고 커 보이게 업그레이드 됐다. 후면에 적용된 듀얼 머플러팁도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준다. 실내는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 휠베이스를 41mm, 2열 다리 공간을 53mm 늘려 실내 공간은 더욱 넓어졌다. 원격시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시트 등을 통해 편의성도 보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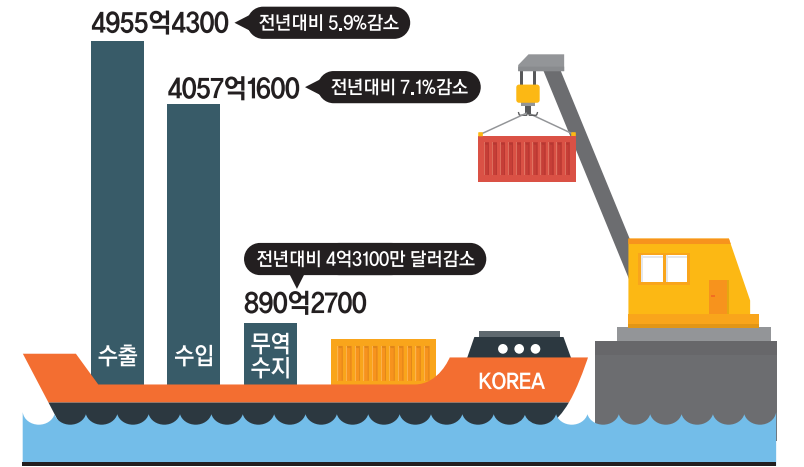
###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혁신적인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XC90과 S90을 통해 약진하고 있는 볼보에서 이번에는 왜건 모델인 V90 크로스컨트리를 선보인다.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기존 V90에 비해 차체 높이를 65mm 높여 험로에서의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전장은 42mm, 전폭은 20~40mm 늘려 실내 공간도 더 쾌적해졌다.

원성욱 기자 sereno@donga.com

## 메이더로 보는 경제 2016년 우리나라 수출·입 성적표 (단위 : 만 달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도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4955억4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57~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같은 기간 수입도 4057억 1600만달러로 7.1% 줄었다.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 주목할 만한 IT기술은?

# '인공지능·가상현실' 대중화 시대

AI 플랫폼 스마트폰에 이식... '혼합현실' 새 트렌드 사물인터넷·핀테크 등 기술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

2017년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의 상용·대중화 시대가 열린다. 또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등의 분야도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구글의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격돌로 큰 화제를 모은 AI는 실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이식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도 그 경쟁영역 중 하나. AI 플랫폼 기업 비브랩스를 인수한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S8'에 관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서 아이폰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업그레이드한 애플과 첫 자체제 스마트워치 '워치'에 AI 비서 '구글어시스턴트'를 적용한 구글 등과의 글로벌 경쟁은 더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도 거세진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누구'라는 기기와 서비스를 내놓은 가운데, 경쟁사인 KT도 올해 AI를 적용한 서비스 '기가지니'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기업들 중엔 네이버가 AI 기반 번역 서비스 '파파고'를 선보였고, AI 관련 투자 확대도 선언했다. 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AI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VR의 경우 올해 대중화 시대에 온다. 지난해 말 HTC의 '바이브'와 구글의 '데이드림' 등 새 플랫폼과 기기들이 잠점을 알린 가운데, 올해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게임은 물론 유튜브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증강현실(AR)과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혼합현실(MR)'이란 새 트렌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난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 IoT는 올해 우리 생활 속을 더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 기업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영역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영업을 시작하는 '핀테크'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연결(O2O)도 주목할 만하다. '자율주행'과 '5G네트워크' 등 미래기술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결제시 5% 할인 e-쿠폰·15% 청구 할인



롯데백화점 롯데카드

롯데카드는 백화점 이용에 특화된 할인 혜택을 담은 '롯데백화점 롯데카드'를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에서 결제시 5% e-쿠폰 현장할인에, 추가로 최대 10만 원까지 1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 할인 e-쿠폰은 매일 2매 지급되고, 15% 청구할인은 지난달 이용금액이 30·50·100·200만원 이상이면 각각 2·3·5·10만원까지 할인 한도가 제공된다. 또 롯데백화점에서 12개월 할부 구매시 할부수수료 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해당 월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

## 아이파크백화점, 재봉틀·종이 모빌 등 '하비 페스티벌' 강화



종이 모빌을 살펴보고 있는 고객들.

아이파크백화점이 신년을 맞아 새로운 취미를 가지려는 고객들을 위해 '하비 페스티벌'을 연다. 20~30대 여성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재봉틀을 배울 수 있는 '소잉 입문 강좌'가 대표적. 부라더소잉팩토리 매장에서는 재봉틀의 기초를 배우고 쿠션·주방용품·옷가지 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15일까지 초보자용 재봉틀을 79만원에 특가판매하며 와이드 테이블을 증정한다. '투카랩'은 2일까지 하트·우주선·UFO 등 손으로 만드는 종이 모빌을 1만3700원에 판매한다.

## LG전자, 24시간 사용 가능한 노트북 '올데이 그램' 출시

LG전자가 배터리 용량을 늘려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노트북 '올데이 그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 LG화학의 신소재 배터리 적용해 기존대비 용량이 약 1.7배 늘어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충전 속도도 빨라 20분만 충전해도 최대 3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열을 식혀주는 팬 구조를 최적화해 저소음을 구현했고, 키보드에 백라이트를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하기 편하다. 인텔의 새로운 7세대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해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도 끊김없이 표현한다. 올데이 그램의 출하가는 153만~245만원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금융

# 1 카드사용 확대 2 결제기술 수출

카드결제 변화 장려...등록금 등 생활밀착형 타깃 파트너 찾기 본격화...인도네시아 등에 해외진출

## ■카드업계, 수익 창출 위한 '두 토끼 사냥'

'수익 창출 위한 두 토끼를 잡아라!'

2017년 정유년 새해, 카드업계의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카드사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파생됐다. 최근 열린 제5회 여성금융포럼에서 유종문 여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경기침체로 카드이용실적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업체 간 경쟁심화,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카드사들의 2017년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 이상 결제 수수료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새해 수익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두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드사용 확대 및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기술 수출 등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카드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서 카드결제로의 전환을 노린다. 대학등록금·학원비 등 교육 부문과 임대료·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부문, 급식비·배달 우유 결제 등 생활 밀착형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최근 신한·삼성·하나·BC·롯데카드가 부동산O2O 플랫폼 '다방'과 손잡고 '다방페이'를 통해 월세 자동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과 KB국민카드가 전자결제업체 결제사이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활 밀착형 현금 결제 시장에 뛰어들 게 그 예다.

### ●해외 진출도 가시화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가시화 되고 있다. 국내 카드사 중 최초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승인 받은 신한카드가 대표적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달부터 본격화할 신용카드 영업에 합작 파트너인 살림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모

집적으로 활용하고, 현지에 이미 진출한 신한은행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BC카드도 최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미트라 프란자시 인도네시아'의 개소식을 연 데 이어, 올 2분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프로세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국내 우수한 지불결제 솔루션을 통해 현지 가맹점 및 신용카드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카드업계의 신년 키워드는 김덕수 여성금융협회장의 신년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가 신규사업 확대를 통해 고객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도입과 업체 내 경쟁심화로 인한 비용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회원사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현지 인허가 관련 주요정보, 해외진출 성공사례 등을 조사하고, 회원사에 제공해 여성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욱 기자 jay@donga.com